혼조조카마치 해설판 8　　조카의 동쪽 요충지「오사와 강과 니마이바시」

혼조성터 동쪽에 남북으로 흐르는 오사와 강은 성의 외해자의 기능을 가지며 당시의 마을은 오사와 강을 경계로 서쪽을 부케마치, 동쪽을 아시가루마치, 테라마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.

성 아래 동서 왕래는 크게 두 방법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현재 위치에서 오사와 강에 놓인 「니마이바시」를 건너 야치마치에 들어가 남쪽으로 간 뒤 동쪽으로 향해 오노미치를 지나 혼조가도와 야시마가도로 향하는 것, 다른 하나는 성 아래 북쪽의 오사바시를 건너 하치만마치(현 야치마치)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

그 중에서도 니마이바시를 건너는 이 거리는 성에 가까우며 조카중심부의 동쪽 출입구로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. 쇼호 원년(1644년)에 막부가 각번에 명령해 작성시킨 아래의 성 평면도의 현재지 부근을 보면, 성의 북서쪽에 설치된 다이몬과 마찬가지로 니마이바시 서쪽에도 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또 토루도 둘러싸여 있어 방어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시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 18세기 초의 혼조조카 평면도에는 현재 위치인 가다레 서쪽 주차장 부근에는「고요우루시바야시(삼림)」가 펼쳐져 있고 또 이 주차장 남쪽에는 「다이쿠야(목공방)」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당시 니마이바시 주변에는 성의 영선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※문화교류관 가다레 부지내에 있는 오사와 강은 지하수로로 되어 있습니다.

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.